

천도교 지일기념일·<천도교신문> 창간 기념식 축사

축 사

천도교가 오늘 제150회 지일기념일을 맞아 <천도교신문>을 창간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인즉천(人卽天)의 가르침과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의 깃발 아래 동학을 창도한 이래 천도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한 민족 종교로서 우리 민족이 겪어온 근대사의 아픔과 희망, 굴절을 모두 함께 해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하여 조선의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였고, 가혹한 일제강점기 아래서는 3·1운동을 주도하고, 《개벽》과 《만세보》를 비롯한 많은 잡지와 일간지 발간을 통하여 민족정신의 함양과 민족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소중한 노력을 다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의 암흑기, 조국의 분단과 한국전쟁의 참화, 그리고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천도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천도교의 활동이 성과를 내는데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천도교가 <천도교신문>을 창간하고 모든 미디어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중흥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지일(地日)은 수운 대신사께서 해월 최시형 신사에게 도통을 전수하신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해월 대신사는 물물천사사천(物物天事事天) 가르침으로 수운 대신사의 가르침을 더욱 깊게 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고, 동학농민혁명을 지도하여 민족 자주의 길을 밝혔으며, 의암 손병희 성사에게 도통을 전하여 천도교의 이름을 세우게 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지일에 <천도교신문>의 창간을 세상에 두루 알리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신문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통일의 시대, 전쟁과 차별을 넘어서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 물질만능주의를 넘어서는 도덕과 윤리의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야 합니다. 앞으로 <천도교신문>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천도교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천도교의 지일을 다시금 지극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축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사)한국종교지도자연합회 공동대표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